

1,400원대 ‘강달러’에 정유·항공·철강업계 ‘휘청’

원자재 가격 상승 영업이익 감소

연평균 환율 역대 최고 수준 거론

관련 기업 장기 계획 재검토 나서

올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한다.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시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들도 장기 경영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원유 전량 수입하는 정유업 ‘타격’

국내 정유업계는 연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 전량을 해외에서 달러화로 사들이고 있어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환율이 10% 오를 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약 1천544억원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유업계는 생산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해 환율로 인한 차익을 얻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파생상품 투자 등을 통해 ‘헤지(hedging·위험 회피)’에 나섰다.

◇유류비 부담 항공업계…여행 심리 위축도 항공업계 역시 환율 상승에 큰 부담을 체감하는 업종 중 하나다.

통상 항공사 영업비용 중에서 가장 큰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를 비롯한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 등 고정 비용을 달러로 결제한다.

여기에 환율이 오르면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항공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환율에는 달러로 계산되는 외화환산 손실 규모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외화 부채는 약 48억달러로,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480억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대한항공은 환율 대비 통화·이자율 스와프 계약을 맺는 등 일정 부분에 대해 헤지 전략을 실행해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각 항공사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재 수입 중인 내년 사업 계획 가운데 환율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세까지 ‘실상가상’ 철강업계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철강 업계도 미국의 50% 부품관세 부과에 환율 급등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입 비용이 늘면 원가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철강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원자재값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부담이 더하다.

다만, 대형 철강사들은 철강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로 유연탄과 철광석 등 주요 원료를 사들이는 ‘내추럴 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려 대응하고 있다.

◇식품기업 원가 부담…가격 인상 쉽지 않아 고환율에 식품 기업들은 갈수록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8%로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롯데웰푸드는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원달러 환율 10% 변동시 35억원의 세전 손익 영향이 있다고 공시했다.

CJ제일제당은 사업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세후 이익이 13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직격탄…대형마트는 수입 다각화 면세점에는 사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강달러 상황이 이어지면서 면세 쇼핑의 최대 장점인 ‘가격 이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경증 오르면서 달러 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의 일부 제품은 백화점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더해 ‘단체 쇼핑 관광’ 중심이던 여행 패턴이 ‘개별 경험·체험 관광’으로 바뀌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먹거리, 문화 체험에 지출을 늘렸고 이에 따라 면세점의 객단가는 더 감소했다.

면세점들은 관광객의 쇼핑 부담을 낮추고자 할인과 쿠폰 발급 행사, 환율 보상 혜택을 강화했고, 관광 트렌드에 맞춰 체험 이벤트를 강화하고 있으나 환율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현대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올해 각각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마트는 연간 구매 계약을 통해 아몬드와 냉동 과일, 올리브유 등 주요 원물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고 있다.

수입육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라 시세가 냉장육 중심으로 상승하자, 냉동육 상품을 5~6개월 치 미리 확보해 비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호주산 소고기 매입량을 확대했다. 지난 7월 사전 계약을 통해 호주산 소고기 물량을 작년보다 약 20% 늘렸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가 최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주관·참여기관 및 수혜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

〈광주TP 제공〉

에너지·배터리 산업 산학연 협력 강화

광주TP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술교류회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19일 “최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주관·참여기관 및 수혜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 ▲RE100산업단지 등 광주의 에너지산업 환경 분석 및 육성 방향 제시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

26년 신규사업 방향 및 계획 공유가 진행됐다.

이는 지역 에너지 기업들에게 향후 정부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엔텍정보기술, 동진기업(주), 그리다에너지, ㈜다윈디앤에스, ㈜에스티테크 등 5개 수혜기업이 자사의 보유 기술, 제품 및 AI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하고 사업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가 바로 쓰는 생성형 AI 활용법’ 특강은 인공지능을 업무에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사례와 방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5극특 성장엔진산업 소개 ▲202

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방향(R&D, 비R&D) 공유 ▲수행기관 간 진도점검 회의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광주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의 공동 지원 아래 광주TP, 광주지역산업진흥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광주 에너지밸리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을 성장 거점지구로 삼아 에너지 및 미래차 연계 배터리 산업을 집적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사업은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주관한 1단계 사업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안태호 기자

해외투자 열풍…대외금융자산·증권투자 ‘역대 최대’

한은 ‘국제투자대조표’ 발표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 열기에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비거주자의 한국 투자보다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 순대외금융자산(대외 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도 세 분기만에 증가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9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7천976억달러로 집계됐다.

2분기 말(2조6천818억달러)보다 1천158억달러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1천651억달러)보다 줄었다.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2천140억달러)도 한 분기 사이 800억달러(지분증권 +814억달러·부채성증권 +76억달러) 불어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직접투자(잔액 8천135억달러) 역시 이차전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87억달러 늘어 역대 1위

였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1조7천414억달러)는 900억달러 늘었다.

비(非)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천365억달러)가 885억달러(지분증권 +896억달러·부채성증권 -11억달러) 불었지만, 직접투자(잔액 3천135억달러)는 37억달러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1천158억달러)이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900억달러)을 웃돌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1조562억달러로 2분기보다 258억달러 늘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